

---

## 나는 언어의 장인, 시계공처럼 정밀하게 — 소설가·번역가 안정호 선생을 찾아서

---



답변자: 안정호(소설가·번역가)  
질문자: 차익종(서울대학교 강사)  
때: 2011. 1. 16. 오후 3시  
장소: 서울 은평구 자택 집필실

‘스킨십(skinship)’? 그런 영어는 없다. 가짜 영어일 뿐.

‘모기지론?’ ‘부동산담보대출’이면 얼마나 쉬운가? 그렇게 과시하고 싶은가?

“그녀는 긴 팔을 가졌다(She has a long arm.)?”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팔이 길다.”라고 하지.

‘있다, 것, 수’를 다 빼 버려야 간결하고 생동감이 생긴다.

‘영터리 영어 자랑하기’를 비판하고, 우리말다운 표현, 군더더기 없는 글쓰기를 부르짖어 온 분이 있다. 안정효 선생이다. 한때 “월간지”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노벨상 수상작과 현대 문제작의 번역을 도맡아 온 분이다. “번역문학가”라는 칭호를 만들어 낼 만큼 번역가의 위상을 높여 놓고는 돌연(?) 소설가로 등단해서 화제를 모았다. 그 이후에는 소설 창작에 주력하여 1992년에는 김유정 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소설 집필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이뤄졌다. 대표작인 《하얀 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등을 영어로 직접 써서 내놓았고, 해외 평단에서 갈채를 받았다. 게다가 소설 창작과 번역에 평생을 바쳐 온 분답게 최근에는 글쓰기 책을 발간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만나기 전부터 궁금증이 생긴다. 이 분은 번역과 소설 쓰기 중 어느 쪽을 출발점으로 여길까? 영어 소설과 한국어 소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 흔히 번역에는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우리말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왜 그럴까?

북한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자택의 문을 무작정 두드리니 반갑게 맞아 주신다.

## 소설가로 먼저 시작했지요

**차익종:** 안녕하십니까. 언론이나 책에서는 선생님을 ‘번역가·소설가’, 혹은 ‘소설가이자 번역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번역문학가’라고도 불리셨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두 방면 중 어느 쪽으로 소개 받기 원하시나요?

**안정효:** 아직도 번역가라고 불러 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본래 대학교 때부터 소설을 썼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설가라고 생각했어요.

**차익종:** 문단에 나오신 일은 번역가로 알려진 후 아닌가요?

**안정효:** 그렇지만 시작은 소설 창작부터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1961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영어로 썼지요.

**차익종:** 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도 듣고 싶습니다.

**안정효:** 서강대 영문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첫 학기를 다녀 보니까 제가 영어도 문학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방학이 되자 다들 놀러 다니기에 바빴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날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읽었죠. “우선 문학부터 알자.” 이렇게 생각하고 도서관에 있는 세계 문학 전집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당시 을유문화사를 비롯해서 세 군데 출판사에서 세계 문학 전집을 내놓았는데, 전부 읽어 버렸죠. 우리말로 읽을 책이 더 없어서, 영어 공부도 할 겸 영어 소설을 읽었죠. 그런데 좋은 작품을 읽다 보니 저도 근사한 소설을 써 봐야겠다는 욕구가 생겼지요. 전공도 영문학이니까 영문 소설을 썼죠. 그렇게 해서 대학교 졸업 때까지 영어 장편 소설 여덟 권을 썼습니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도 3학년 때 써두었던 작품이었어요.

**차익종:** 영어 소설을 한 권도 아니고 여덟 권을 쓰셨다니요! 그것도 전부 장편으로요.

**안정효:** 그렇지요. 서강대에서는 외국 신부님들이 교수로 강의하셨는데, 그분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작품 좋다. 작가가 되어 봐라.”라고 격려를 해주

셨어요. 출판사에 원고 보내는 요령까지 알려 주셨어요. 그 바람에 대학 시절 내내 소설 쓰고 해외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곤 했어요. 그때 저는 곧 데뷔하는 줄로만 믿었어요. 신부님들이 거짓말 하시겠어요?(웃음) 그런데 그때는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 대학생이니까.

**차익종:** 데뷔란 참 어렵군요. 외려 번역가로 먼저 알려지시게 되었지요?

**안정효:** “서강대 영문과에 영어로 소설을 쓰는 학생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입니다. 어느 날 펜클럽 회장이던 문학 평론가 백철 선생님이 학교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네가 영어로 소설을 쓴다던데, 혹시 번역을 해 줄 수 있나?” 그 바람에 한국 펜클럽 잡지에 영어 단편 소설을 번역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또 코리안 리퍼블릭지, 그러니까 지금의 코리아헤럴드지의 문화부장이 만나자고 해서 가 보니, 자기 신문사에 들어와서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신문 기자가 됐죠.

**차익종:**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기자가 되셨군요.

**안정효:** 아니, 4학년 때부터였어요. 교수님들이 1년 동안 출석도 면제 시켜주셨죠.(웃음) 그렇게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문화부장까지 지냈지요.

**차익종:** 사실은 소설가를 지망하고 훈련해 오셨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 번역에 입문하게 되셨군요.

**안정효:** 그렇죠, 작가로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번역 안 하겠느냐고 해서 신이 나서 번역했죠. 이게 다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서가를 차지하고 있는 번역서들을 가리킨다. 대부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내놓은 책들이다. 책등에 일련번호를 써서 가지런히 꼽아 두었는데, 150권이 넘었다.)

**차익종:** 한창 때에는 엄청난 속도로 하셨겠습니다.

**안정효:** 하루에 200자 원고지 백 매씩 썼어요. 그래서 어느 도서 평론가에게서 “안 선생은 월간지요! 책이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라는 얘기도 들었죠.

## 등단은 좀 엉뚱하게 했죠

**차익종:** 그러시다가 1983년에 《전쟁과 도시》(하얀 전쟁)로 등단하셨죠?

**안정효:** 그렇죠. 번역을 하면서도 계속 소설을 썼어요. 다만 영어로 썼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 자원해서 종군 기자로 일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말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익종:** 한국 독자와 선생님의 작품으로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가 생겼겠습니까.

**안정효:**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신문사 문화부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작가도 많이 아는 데다 번역 활동까지 했으니 어디 가서 내 작품 쓴다는 얘길 할 수가 없었어요. 번역을 많이 맡겨 주셨던 이어령 선생님도 “안 선생, 문장력 보니까 괜찮은데, 소설 하나 쓰지.”라고 하다가도, 꼭 뒤에 한 말씀을 붙이세요. “그런데 너무 번역으로 이름이 나서 신인이라고 하기도 좀…….” 이런 것이 저한테 자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죠. 사십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신춘문예에 응모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차익종:** 그런 장애 요인을 어떻게 넘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안정효:**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학원사에서 장편 소설을 공모한 것이죠.

**차익종:**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문인들의 등단은 신춘문예가 주 통로였고, 작품도 주로 단편이었지요? 그러니 장편 소설 공모는 좀 이채로운 일이었겠군요.

**안정효:** 그렇죠. 우리 문단에서는 주로 단편으로 신인을 배출하는데 저는 장편만 썼거든요. 마침 장편 소설 공모가 되었으니 좋은 기회라고 느꼈어요. 문제는 학원사의 번역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직원들은 내 원고지 필체까지 안단 말이에요. 궁리 끝에 사람을 고용해서 타이프로 원고를 치고 우리 어머니 성함으로 응모했지요. 이 작품이 당선작이 될 뻔했어요.

**차익종:** “될 뻔했다.”라니요?

**안정효:** 그때가 서슬 퍼런 군사 정권 치하였잖아요? 심사를 맡은 이문구, 이호철 두 분이 제 작품을 당선작으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학원사에서

“이 작품 당선시키면 우리 다 잡혀간다.”며 반대를 했던 말이죠. 두 분은 버텼대요. “이게 아니면 당선작 못 낸다!” 결국 공모 첫 회에 당선작을 못 내고 끝나 버렸죠. 심사평을 보니 “국내외 전쟁문학을 많이 봤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이라거나, “킵진의 문학”이니 하면서도 “사정상 당선작에서 제외한다.”라고만 썼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두 분이 저한테,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실천문학》에 연재를 한 후에 책으로 내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때가 《실천문학》이 계간지로 바뀔 때라 뭔가 큰 물건이 필요한데 이 소설이 딱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저는 심사평에서는 칭찬을 받았는데 당선이 되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어서 그분들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죠. 제가 직접 이문구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 그 작품이 바로 제가 쓴 것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놀라던지. 이호철 선생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더라고요. “아, 이름이 낡았네!”(웃음) 그렇게 엉뚱하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작가가 된 것이죠.

(이후 그는 꾸준하게 작품을 출간했다. 등단 작품인 《전쟁과 도시》(《하얀 전쟁》으로 제목을 바꿈.)를 비롯해서 《은마는 오지 않는다》,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가 대표적이며 모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최근에는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대작 소설인 《술심》을 내놔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대표작 《하얀 전쟁》과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영어로 발간해서 해외 문학평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일본어·베트남어·덴마크어·폴란드어 등으로 다시 번역되었다.)

**차의종:** 결국 소설가가 선생님의 출발점이자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효:** 그렇죠. 본래는 소설을 쓰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작가들이 번역을 많이 합니다. 《닥터 지바고》를 쓴 파스테르나크도 번역

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소설가라고만 하잖아요? 저는 소설부터 썼지만, 발표가 늦었으니까 번역가라고 각인이 된 것이죠.

## 영어 소설과 한국 소설은 별개의 작업

**차익종:** 이중 언어 작가이신 셈인데요, 작품 세계는 비슷하겠죠?

**안정효:** 제 작품 세계는 비슷하죠.

**차익종:** 영어로 소설을 쓸 때와 우리말로 소설을 쓸 때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정효:** 완전히 다르죠. 《하얀 전쟁》은 우리말로 먼저 썼고,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영어로 써 놓은 뒤 다시 우리말로 썼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두고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번역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말로도 쓰고 영어로도 썼다고 해요. 서로 완전히 달라요.

우선 대상이 다르고 인식이 달라요. 우리말로 쓸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못 쓰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오죽하면 《하얀 전쟁》은 당선을 안 시켰겠어요. 이문구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전쟁 문학은 ‘공산군 무찌르고 태극기 휘날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분단 문학을 중요시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분단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사실일 뿐 그들은 거기에 대해 고민하거나 감동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는 잘라야죠.

단어나 표현도 달라요. 예를 들어 동식물 이름이나 풍경을 묘사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영어로는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가령 우리말로는 “백설” 한 단어면 되는데, 영어로 할 때에는 그렇지 않죠.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덴마크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덴마크 번역자가 직접 편지를 해서 ‘flower card’가 뭐냐고 물었어요. ‘flower card’는 화투예요. 설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투 한 장

을 직접 보내 줬죠. 이렇게 말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우리말로 쓸 때는 사자성어를 써서 ‘한 방에 정하게’ 할 수 있지만 영어로 할 때에는 여러 마디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 생략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전부 새로 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도 다르고 구조도 달라져요.

## 스킨십? 영어가 아니라 가짜 영어가 문제

**차익종:** 이제 우리말에 관한 이야기로 나와야겠네요.

**안정효:** 번역 이야기부터 할게요. 저는 번역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말에 없는 단어 외에는 가능하면 영어를 안 쓰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로 쓴 적이 없어요, 승강기라 합니다. 한 가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호텔’이죠. 큰 여관, 장급 여관이니 할 수 없으니까 호텔로 하죠. 이진 일종의 고유 명사로 받아들였죠. 그 단어 이외에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쓴 적은 제 기억에 없어요. 하여튼 우리말에 이미 있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대신하는 것은 원래 싫어했고, 안 썼죠.

**차익종:** 어설픈 외국어나 외래어가 더 문제라는 말씀이지요?

**안정효:** 그럼요.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영어는 80퍼센트가 영어가 아녜요. 가짜예요. 예를 들어 ‘스킨십’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게 어찌 영어예요?

**차익종:** 불필요한 것 이외에는 쓰지 말자는…….

**안정효:**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절대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영어 단어를 쓰지 말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번역이란 곧 우리말로 옮기는 일인데, 거기다 영어 단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 할 수 없을 때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집어넣고 풀이를 달아 주는 식으로 작업을 했죠.



## 음차 표기가 곧 우리말은 아냐

**안정효:** 한글로 표기한 것과 우리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글로 썼다고 해서 다 우리말이 아닙니다. 음차를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외래어란 정말 선별적으로 골라서 써야지 아무 단어나 한글로 써 놓고 이걸 외래어다 하면 안 되죠.

**차익종:** 요즘에는 또 새로운 영어 아닌 영어가 등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패닉 모드, 민주당은 당 대회 모드에 돌입했다.”는 등.

**안정효:** 저는 우리말을 훼손시키는 주범이 텔레비전, 그 다음이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근사해 보이려는 욕심이죠. 가령 ‘모기지론’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곤충에 대한 학문인가?” 했더니깐요(웃음). 알고 보니, ‘담보’를 말하는 ‘mortgage’였어요. 그냥 ‘부동산 담보 대출’이면 되는데 말이죠. 텔레비전에서는 자기가 근사해 보이려고 알지도 못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고, 신문에서는 알기는 좀 아는데, 새로운 말을 자기가 안다고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우스운 일이 있어요. 어느 신문에서 “요즘 미국에선 ‘가차 문화’가 유행한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Gotchal!”라고, “축았지롱.” 하는 뜻으로 유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유치원 애들도 “메롱”할 때 쓰는 말인데, 이 기자가 처음 듣고는 “워싱턴 정가에서 이 말이 유행한다.”라고 썼으니.

**차익종:** 자량이 망신이 되는 경우군요.

**안정효:** 자기가 처음 들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익종:** 그래서 《가짜영어 사전》이란 책을 쓰셨죠.

**안정효:** 본래 《영어 길들이기》 같은 번역 지침서를 쓸 때 일본식 영어 ‘팬쓰’는 본래 ‘panties’라거나, ‘파이팅’은 잘못된 말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쓰긴 했죠. 이런 내용으로 따로 한 권을 만들 자신은 없었어요.

백 페이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너무 많았어요.

**차익종:** 결국 1천 페이지나 되었죠!

**안정효:** 기왕 나온 얘기지만, 영어 가르치는 기관을 자처하는 교육방송(EBS)에서 이에 ‘보카’라는 말을 씁니다. ‘vocabulary’를 잘라서 쓰는 말인데, 사전을 찾으면 vocab-에서 분철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잘라 쓰고 싶으면 ‘보캡’이라고 해야죠. 교육방송이 음절을 어디서 잘라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미드’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drama)의 ‘d’로는 음절이 안 되잖아요.

**차익종:** 안타까우시겠습니다.

## 우리말로 하면 다 통할 수 있는데

**안정효:** 화가 나죠. 국어로 하면 다 통할 걸, 왜 저렇게……. 결국 개념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를 쓰면 서로 무슨 애긴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가령 “아이러니”라는 말을 마구 쓰는데,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그 말이 우리말로 뭐냐고 물어보죠. 얼른 대답들을 못해요. 영어에서 ‘비꼬다’는 의미를 경우에 따라 여러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irony, satire 등등. 그런데 모든 것을 아이러니하다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막상 우리말로 뭐냐고 물으면 모르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말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irony를 우리말로 쓴다면, “비꼬다, 풍자한다, 빈정거린다”에 다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우리말에서부터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구별해서 쓰지 못하죠.

**차익종:** 그러면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안정효:** 경우에 따라 다르죠. 꼭 한 단어를 한 단어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비꼬아서 말한다’, ‘비꼬다’, ‘빈정거린다’ 등등. 흔히 “멋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다.”라고 하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그 단어가 여러 개로 있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통하는 단 한 단어를 찾으려니까 없죠. “She got a

class.”에서는 ‘class’가 ‘멋’이에요. “It’s stylish.”에서는 ‘style’이 멋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는 것이죠.

## 보통 사람의 살아 있는 말이 나의 사전

**차익종:** 적절한 우리 단어를 찾는 품이 많이 드실 텐데, 사전도 많이 참조 하시겠군요.

**안정효:** 물론 글을 쓰려면 사전이 많이 있어야 되죠. 번역을 하기 위해서도 몇 십 가지 사전이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말 표현은 사전에서 찾는 게 아녜요. 작품을 많이 읽는 게 좋고, 또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찾아야죠.

**차익종:** 여기저기서 찾는 비결이 따로 있으십니까?

**안정효:** 오며가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면서 “아, 사람들의 어법이 어떻게구나.” 하는 것이죠. 이번에 발표한 《솔섬》은 옹진군이 무대인데, 강화 쪽 아녜요? 제가 주말마다 강화도에 낚시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그곳 사람들은 어미를 ‘-껴’로 쓰더군요. 그런 것을 신경 쓰죠.

**차익종:** 사실 습작 시절에 우리말 사전을 달달 외웠다는 작가들이 적지 않던데요, 선생님께서는 실제 한국인들이 구사하는 살아 있는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이군요.

**안정효:** 저는 버릇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아, 이 말은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구나.” 하며 동시통역을 해요. 그리고 주말 새벽마다 낚시를 가려 새벽 첫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 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직업이 뭘까, 성격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며 연구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하는 말에서 신기한 단어나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면 “저걸 써먹어야겠다.” 하고 담아 놓죠. 사전 단어 외우기보다 훨씬 낫죠.

**차익종:**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 해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안정효:** 적어 놓죠.

**차익종:** 그 자리에선 안 하시겠죠?

**안정효:** 그 자리에서 해요. 저는 낚시 가는 옷, 외출하는 옷, 이런 데 전부 따로 메모지를 넣어 놨어요. 그 자리에서 전부 적어 놔요. 걸어가면서도 적죠.

**차익종:** 그만큼 생생한 표현이 나올 수 있겠군요.

**안정효:** 노력의 덕분이죠. 임영웅 선생 부탁으로 희곡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배우들이 읽어 보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라며 감탄했다고 해요. 제가 평소애 연구를 해서 깨우친 덕이죠. 몸에 배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되더라고요.

요즘 작가들의 작품이나 방송 언어에서 보면, “이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많은데, 영어 ‘can be’에서 왔겠죠. 저는 그런 표현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말에서는 ‘수’가, 어떤 묘수, 방법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보다는 “이런 것을 먹으면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가 우리말에 맞거든요. 이렇게 안 따지는 작가도 많아요.

**차익종:** 서울 마포 출신이신데, 다른 지방 방언에도 관심을 가지시겠군요.

**안정효:** 방언하고 역사는 좀 “그러네요.”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역사 소설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제가 싫다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뭐든지 직접 관찰해서 분명히 알게 된 만큼만 쓸 수 있어요. 5공화국에서 한 일 중 뭐가 진실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삼백 년 전 사람들이 신발 속에 무얼 어떻게 신었는지 알 수가 있겠냐, 난 자신 없어서 못 쓰겠다고 했죠.

방언도 그래요. 제 소설에는 방언이 안 나와요, 이제부터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대신 이런 방법을 쓰죠. 예를 들면 《은마는 오지 않는다》는 소설에 경상도 여자가 나와요. 이 사람 대사를 서울말로 쓴 다음에 경상도 출신 친구한테 경상도 말로 번역해 달라고 했죠.(웃음).

《학동의 전설》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무대가 어디냐면 전라도 고흥이에요. 사건이 고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직접 고흥에 가서, 고흥 사람들한테 여기 말로 바꿔보라고 했죠. 거기서는 ‘저수지’를 ‘저수’라고 하

더라고요. 또 경상도 사람들은 ‘앞전에’라고 한다지만, 실제로는 대구에서 주로 쓰고 부산에선 안 쓴다네요.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솔섬》 배경이 된 강화도는 제가 30년 동안 매주 낚시하러 갔으니깐 이제 그곳 말은 알아들을 만도 하죠.

**차익종:** 결국 정확성과 객관성을 추구하시는 것이군요. 항상 확인을 하시는 습성이 있으시고요.

**안정효:** 글 쓰는 사람이 독자에 대해 깊어지는 의무죠. 제가 쌀장수라면 맛있는 쌀을 어디서 구해서 얼마나 말리고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하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idea’였어요. “I have a good idea.”라는 문장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라고 옮겨도 알아듣긴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좋은 수가 있어.”라고 하죠. 이 ‘수’가 바로 ‘idea’란 말예요. 그런데 영어사전 풀이에는 ‘수’가 안 나와요. 사전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화에서 찾아내야죠. 번역하려면 그런 작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익종:** 번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번역어투’가 화제가 되곤 하는데요, 역시 실제 한국어에 나오는 표현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안정효:** 그렇죠. 영어의 수동태, 복수 표현을 우리말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일인칭 주어를 일일이 살린다거나 소유격을 똑같이 구사해도 곤란하죠. 문장 구조 자체도 달라져야죠. “My arm is long.”은 “나의 팔이 길다.”가 아니라 “나는 팔이 길다.”라고 해야죠.

**차익종:** ‘she’는 어떻게 옮겨시나요?

**안정효:** 거의 등장인물 이름으로 바꿔 쓰죠. 정 할 수 없어서 ‘그녀’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름을 직접 쓰거나 ‘여자가 말했다’라는 식으로 쓰죠.

## 논리적이고 정확한 문장, 감칠 맛 도는 문장

**차익종:** 글쓰기 책도 쓰셨는데, 좋은 문장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안정효:** 말이나 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 배고파.” 정도만 하면 굶어죽진 않는단 말예요. 그런데 공문서를 쓴다거나 하면 “문자 쓴다.”라고 하잖아요? “나 배고파.” 정도로는 안 되고, 2단계,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필요가 생기죠. 문학적인 글은 또 다르겠죠. 어휘의 풍경이나 맛을 따지고, 어원도 생각해야죠. 이 말이 어느 단어에서 나와서 감칠맛이 이렇게 생긴다 등등, 단어에 들어 있는 맛이나 빛깔까지 고려해서 구사해야 문학적인 글이 되죠.

2단계부터는 어휘력이 그만큼 강해야 합니다. 어휘가 풍부하면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죠. 《위낭 소리》라는 영화가 성공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위낭이 뭔지 몰랐어요. 영어에서는 그걸 ‘cow bell’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쇠방울, 쇠종’으로 번역하면 곤란하죠. ‘위낭’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실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따로 있는 법이니까. 그걸 모르면서 “쇠방울, 쇠목에 달린 방울, 떨렁 쇠”라고 짓는다면 뜻은 통하지만 사실에서 멀어지죠. 어떤 사회나 계층에서 쓰는 정확한 단어를 찾아 써야 문장의 수준이 높아지는 법이죠.

**차익종:** 그러니까 수준 높은 번역일수록 우리말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효:** 저는 번역이든 창작이든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단어 하나를 쓸 때에도 흔하지 않은 단어를 선택하려 했죠. 똑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 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죠. 심지어 한 문장에 “옆으로 가는 도로는”처럼 같은 토씨가 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전부 피하죠.

**차익종:** 하나는 조사고 하나는 어미인데도 철저히 따지시는군요.

**안정효:**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 어휘 실력이 늘어나죠. 그리고 요

즘 사람들의 언어는 제가 자랄 때 언어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들을 가능하면 살려서 쓰려고 하죠. 마치 피가 잘 돌면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것과 같죠.

**차익종:** 연구에 가까운 일이군요.

**안정효:** 연구를 해야 하죠. 연구를 안 하니까 못하지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돼요. 조그만 단어 하나를 바꾸면 눈에는 안 띄지만 독자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죠. 정지영 감독도 그러던데, 제 소설을 보면 영화를 보듯 눈에 확 들어온다는 평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느냐는 모르지요. 제가 그렇게 느끼도록 쓰니까 그렇지요. 저는 설명을 해도 오감을 자극하는 쪽으로 바뀌 쓰려고 하죠. “옆집에 이사 온 여자는 예쁘다.”라고 쓰기보다는, “그 여자에게선 비누 냄새가 난다.” 이러면 벌써 그 한마디에, 어떤 여자인지 떠오르지 않겠어요?

## 간결한 글쓰기가 최고

**차익종:** 《글쓰기 만보》에서 ‘있다, 것, 수’ 없애기 훈련을 소개하셨지요.

**안정효:**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웃음) 문장이 지루해지고 지저분하잖아요. 똑같은 말, 쓸데없는 표현을 반복하면 곤란해요. “했다”고 쓰면 압축이 되니까 문장에 힘이 생겨요. 이화여대에서 문학 번역을 가르칠 때 3개월 동안 그것만 가르쳤어요. ‘있다, 것, 수’ 하나씩 나올 때마다 3점씩 깎았어요. 열 개면 70점이 되니까, 자칫하면 낙제 선까지 내려가죠. 3개월이 되니까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장 실력이 좋아졌어요.

**차익종:** 그 책은 오래 전부터 구상하셨나요?

**안정효:** 대학교 다닐 때 영어로 된 문장 작법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당시 우리 문학 입문서들은 글쓰기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작가란 무엇이냐, 작가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만 늘어놓더라고요. 근

데 영어 작법을 보니, 가령 루돌프 플래시의 책을 보면, 문장은 어떻게 간결하게 쓰고, 동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관계 대명사 that, which 중에서 왜 that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 준단 말예요. 그런 내용이 진짜 도움이 되었죠.

그 이후 글쓰기에 대해 계속 느끼고 실천해 본 내용의 일부를 책으로 펴냈죠. 워낙 오랫동안 생각해 온 내용이라 책이 두꺼워요. 지금 책이 700페이지인데, 그나마 200페이지를 잘라 내서 덜어 냈죠.

**차익종:**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수” 등은 저도 평소에 많이 느꼈던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정확히 지적해 준 글쓰기 책은 거의 없었죠.

**안정효:** 단어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밀하게 작업하는 노력이 작가의 사명감에 대한 강의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초창기에 제가 번역한 작품에는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개역을 하면서 계속 고쳐나가죠. 그렇지만 새로 쓰는 작품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 시계공처럼 정밀하게

**차익종:** 초고를 쓰실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데 퇴고나 교정 때도 그러시겠지요?

**안정효:** 처음에는 영감에 따라서 우선 짝 쓰잖아요? 일단 써 놓고 나면 시간을 많이 가져요. 밀어 놓고 하룻밤을 잔다거나 며칠 후 다시 읽어 보면서 문장에서 그때의 감흥을 빼 버리는 거죠. 감흥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문장을 놓고 들여다보죠. 시계 수리하듯이. “이 단어가 여기에 맞나? 더 좋은 말투가 없나? 어순은 이렇게 하면 되나?” 특히 주의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말은 주어와 동사가 서로 멀리 떨어져요. “나는 포도를 이리저리하게 주워서 그 사람한테 주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장이 아주 길어지면 나중에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의도적으로 주어를 뒤로 가져가죠. “여기서 포도를 이리저리하게 주워서 내가 그 사람한테 주었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선명해



지죠. 그렇게 계산을 해요. 문장을 놓고 레고 게임하듯이 맞추죠. 굉장히 기계적인 작업이죠.

그런데 작업은 기계적인데, 해 놓고 보면 오히려 문장이 더 생동감이 나요. “이 단어는 쓸데없이 들어갔구나, 이걸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문장이 더 부드러워지죠.

**차익종:** 시계 수리에 비유를 하시네요. 작가는 시계장인 같은 사람인가요?

**안정효:** 그만큼 정밀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면 교정지가 나오는 데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교정지를 받으면 또 새로운 눈으로 보죠. “아, 여기가 겹치는구나.”하고 시계 수리하듯이 다시 또.

## 작가는 말의 스승이 되어야

**차익종:** 우리말 생활에서 작가나 번역가의 역할이라면 무엇일까요?

**안정효:** 말이 변화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빅토리아 시대에는 책이 귀하니까 소설은 여럿이 둘러 앉아 한 사람이 읽어 주면 같이 들었었는데, 그때 영어 문장과 20세기 헤밍웨이 작품의 문장은 달라요. 변화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남아서 체통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나운서를 스승으로 생각했잖아요? 번역하는 사람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말을 가르치는 일이고 작품을 소개해주는 활동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연구를 해야 하죠. 직업의식이랄까!

**차익종:**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